

2023. 3. 27.(월) 석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2년 3월 27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

운영부장	김정윤	3780-0801
------	-----	-----------

환경수질과장	김명기	3780-0782
--------	-----	-----------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3매

담당자	성준민	3780-0793
-----	-----	-----------

철새 보금자리 한강 밤섬, 겨우내 묵은 때 말끔히 씻는다

- 시 한강사업본부, 3월 27일(월) 도심 속 생태계의 보고(寶庫) 한강 밤섬 물청소 실시
- 버드나무에 쌓인 민물가마우지 배설물 물청소, 호안가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
- “람사르 습지” 지정된 한강 밤섬 생물종 보호 및 환경 개선 위해 지속 노력할 것”

-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도심 속 람사르 습지 한강 밤섬의 겨우내 묵은 때를 말끔히 씻고 생태 경관을 향상할 수 있도록 27일(월) 14시 ‘한강 밤섬 새봄맞이 청소’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밤섬은 도심 속 철새 도래지로서 생태적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인정받아 1999년 ‘서울특별시 생태경관보전지역’, 2012년 6월 ‘람사르 습지’로 지정·관리되고 있다.
- ’22년 기준 밤섬에는 식물 250 분류군(계절별 40~44개 유형), 조류 60종 약 9,847개체, 저서무척추동물 37종, 양서과충류 5종, 포유류 4종, 어류 18종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멸종위기 I급 흰꼬리수리, 매, 멸종위기 II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새매 등 법정 보호종 12종이 확인되었다.

- 밤섬 새봄맞이 청소는 밤섬의 주요 식물군인 버드나무에 하얗게 쌓인 민물가마우지 등 겨울 철새의 배설물을 씻어내는 물청소와 밤섬 주변 호안가의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으로 진행된다.
- 민물가마우지는 현재 밤섬을 찾는 겨울 철새 중 조류생태계 최우점종으로 그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.

연도	2020년 11월	2021년 11월	2022년 11월
민물가마우지 최대 개체수	1,812마리	2,209마리	4,651마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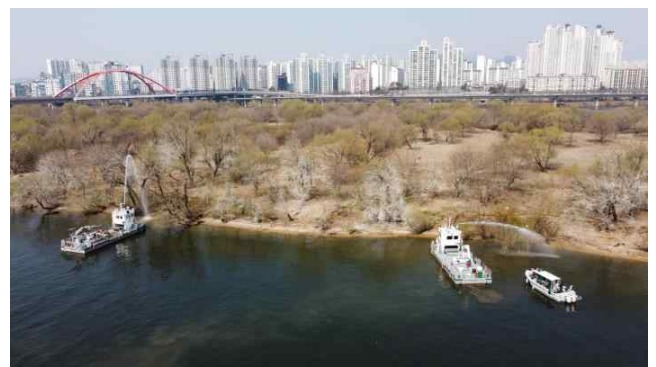
<출처 : 2020~2022 한강 밤섬 일반변화관찰>

- 민물가마우지는 주로 호안가 버드나무에서 휴식하는데, 이때 버드나무에 배설물이 쌓여 새싹을 띄우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어, 매년 봄 고압살수기를 이용해 물청소를 실시한다.
-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밤섬의 안정적인 생태환경 유지를 위해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의 자체 청소인력을 투입해 단시간에 실시할 예정이다.
- 시는 도심 속 생태계의 보고인 밤섬의 생태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생태계 조사·복원 등의 목적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, 하루 2회 이상 순찰하고 있다.
- 주용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“도심 속 생태계 보고인 밤섬이 동식물의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밤섬 새봄맞이 청소를 실시한다.”라며 “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며 숨 쉬는 한강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[붙임] 참고 사진



밤섬 전경



물청소 사진